

“복달임 덕에 ‘힘이 불끈’...올 여름 걱정 없겠어~”

북구 두암3동 주민자치회, 취약층 100세대에 삼계죽 나눔 초복, 일반 식당들도 문전성시...업주들 “오늘만 같았으면”

“든든한 보양식 덕에 올 여름은 더위 먹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복인 15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장과 광주 식당 곳곳에 ‘복달임’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잇따랐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두암3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100세대를 대상으로 ‘초복 맞이 삼계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임순환 두암3동 주민자치회장이 닭 4마리를, 두암동 신협에서 수박과 부채를, 동행복지센터에서 쌀과 두유를, 새마을협의회에서 떡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의 운정으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에게 맛 좋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날 두암3동 새마을부녀회는 오전 9시부터 나와 음식 준비에 나섰다.

먹기 좋게 잘라진 닭 4마리와 쌀과 각종 야채 등이 함께 팔팔 끓여지면서 완성된 닭죽은 오전 11시30분부터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전달됐다.

담백한 삼계죽에 열무김치를 곁들여 드신 어르신들은 만족감을 보이며 행사를 마련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삼계탕 등 복달임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들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정오께 동구 금남로 한 삼계탕 전문점 입구에는 복달임을 위해 온 시민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었다.

줄은 식당 내부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며 예약을 하지 않고 온 이들은 “닭이 다 떨어졌다”는 말에 못내 아쉬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다.

기다림 끝에 뽀얀 국물에 하얀 김이



초복인 15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원과 직원들이 삼계죽과 과일 등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삼계탕을 받은 손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일부는 국물부터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으며, 더러

는 비닐 장갑부터 끼고 닭다리를 베어 물었다.

따뜻한 국물과 건강한 약재가 듬뿍 들어간 닭으로 복달임을 마친 이들은 너도나도 “든든하다”며 “올 여름은 걱정 없겠다”고 웃었다.

김두춘(76)씨는 “초복이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삼계탕집을 찾았다”며 “대기가 길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다”고 엄지를 세웠다.

아내와 함께 온 정만호(72)씨는 “복날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그 해 여름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식당에 왔다”며 “맛있게 먹은 보양식 덕에 무더위도 잘 이겨낼 것 같다”고 밝혔다.

매장 내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길 반복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은 설 새 없이 뛰어다녔으나, 모처럼 맛은 ‘특수’에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보였다.

이곳 식당 업주는 “평소보다 손님이 3~4배 이상은 더 몰린 것 같다”며 “바빠서 숨 돌릴 틈 하나 없지만, 불경기에 이렇게나마 장사가 잘되니 기분이 좋다.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국과수,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

브레이크 밟은 흔적 없어...역주행에 당황 액셀 밟았을 가능성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이 이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실제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차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차씨가 가속페달(엑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방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CCTV 화면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관심은 차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다.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연협뉴스

버스 운전기사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법원, 징역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3시56분께 광주 광산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노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측은 “B씨의 심한 욕설에 못이겨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한다고 해도 당시 버스는 완전 정차였기에 단순 폭행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중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5명은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지라도 혐의는 성립된다. B씨는 승객 하차 뒤 언젠가 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시비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안재영기자

금은방 집입 5천만원 톨 20대여 입건

한밤중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2분 만에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관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A(22)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갈라터에 있던 백들로 금은방 유리창과 전열장갑을 깨며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밤후 후 택시를 타고, 웃을 비껴 잡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근기자

‘파행’ 광주 남구의회 하반기 원 구성 완료

노소영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제2대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의원 간 형사소송이 이뤄지는 등 파행을 거듭한 광주 남구의회가 뒤늦게 원 구성을 완료했다.

1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0회 임시회를 열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 기획총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노소영·정장수 의원이 선임됐고, 의회운영위원장은 투표표 통해 재적의원 11명 중 6표를 얻은 노소영 의원이 당선됐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은봉희 의원이 추대되면서 제2대 하반기 남구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했으나, 당

시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무산됐다.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의원 간 의견 충돌로 이날까지 임시회 일정이 연기됐다.

여기에 지난 10일 남호현 의장 등 6명의 의원이 다른 의원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다음날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구의회는 16일 제30회 임시회를 오는 22일 개최하는 등의 의사일정 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어 의회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유죄로 판단되면 회의의 경우 재선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경찰 조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